

K리그2 시상식 ... 챔피언 '광주FC 잔치'



감독상 이정효



최우수선수·베스트 11 안영규



베스트 11·영플레이어상 엄지성



베스트 11 미드필더 이순민



베스트 11 미드필더 박한빈



베스트 11 수비수 두현석



베스트 11 골키퍼 김경민

감독상·MVP·영플레이어상·베스트 11에 6명 ... 9개 부문 '씩쓸이'

'챔피언' 광주FC의 날이었다. 압도적인 질주로 K리그2 우승을 차지한 광주FC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대상 시상식'에서도 주인공이 됐다. '우승 사령탑' 이정효 감독이 감독상 주인공으로 단상에 올랐고, '캡틴' 안영규와 엄지성은 각각 MVP와 영플레이어상 수상자가 됐다. 안영규와 엄지성은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두 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골키퍼 김경민, 수비수 두현석(우측), 미드필더 박한빈·이순민(이상 중앙)도 베스트 11으로 당당히 시상대에 섰다. 25승 11무 4패(승점 86)로 K리그2 최다승·최다승점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우승을 지휘한 이정효 감독의 수상 소감은 짧고 굵았다. 그는 "상을 받게 돼서 감사하다. 광주팬들에게 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광주FC 선수단과 나는 큰 꿈을 안고 K리그1에 도전한다. 내년에도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주셔서 큰 성원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팬들과 함께 하는 도전의 2023시즌을 이야기했다. 베스트11에 선정돼 "축구를 하면서 처음 타보는 상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던 안영규는 다시 MVP로 호명된 뒤 "예상치 못했던 MVP 수상"이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안영규는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다. 올 시즌 들어 축구 선수로 나이(89년생)가 많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간절하게 준비했다.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능력을 끌어내주신 감독님과 코치님 지원 스태프 구단 직원분들 모두 응원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다"며 "부족한 '주장'을 하면서 따라와 준 팀원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감독님께서 누구나 열심히

히 한다고 잘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도 더 잘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엄지성은 프로 두 번째 시즌에 9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베스트11과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이 됐다. 엄지성은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올 시즌 훌륭한 감독님 코칭스태프 밑에서 잘 배우고 좋은 형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상을 받게 됐다. 항상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준비해준 스태프분들과 구단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내년에는 K리그에서 경기하게 됐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경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올 시즌 광주의 골대를 든든하게 지킨 골키퍼 김경민은 "영광이다. 이정효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지원 스태프, 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항상 광주FC를 응원해주시는 가장 소중한 팬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 아내에게 사

이정효 감독상
안영규 MVP·베스트 11
엄지성 영플레이어상·베스트 11
김경민·두현석·박한빈·이순민
베스트 11 수상

광한다고 말하고 싶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눈길을 끈 두현석은 "얼떨떨하고 뿌듯하다. 반쪽짜리 선수였던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정효 감독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구단 관계자, 팬들,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미드필더 부분에서는 광주가 네 자리 중 세 자리를 차지했다. 3골 8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시즌을 보낸 박한

빈은 "영광이다. 광주FC 이정효 감독님, 코칭스태프, 관계자 팬들에게 감사하다. 와이프가 내조 열심히 하고 응원, 사랑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섰다.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고 1부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이야기했다. 약바리 플레이로 중원에서 활력을 불어넣은 이순민은 "17년도에 입단해서 데뷔하는 데 4년 걸렸고, 5년 만에 데뷔골을 넣었다. 올해 6년째인데 좋은 상 받고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며 "특별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특별한 꿈을 꾸고 이루고 싶었다. 성실히 꾸준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꾸준함의 미학을 알려주신 사랑하는 부모님 존경한다. 큰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삶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특별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순민은 페퍼로 변신해 K리그 시상식 축하 공연도 펼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연합뉴스 기자 wool@kwangju.co.kr



김민재, 나폴리의 '철벽'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에서 열린 2022-2023 이탈리아 세리에A 11라운드 AS로마와의 경기에서 나폴리의 수비수 김민재(오른쪽)가 로마의 스트라이커 테미 에이브러햄 앞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김민재는 에이브러햄을 성공적으로 밀착 수비하며 팀의 무실점에 기여했다. 나폴리는 후반 35분 빅터 오시멘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하며 시즌 9승 2무로 리그 1위를 질주했다. /연합뉴스

김하성, 짜릿하고 강렬했던 가을야구

샌디에이고 NLCS 패배 ... '8득점' 팀 포스트시즌 최다 득점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도전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7전 4승제)에서 끝났지만, 한국인 내야수 김하성(27)은 공수 살림꾼으로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알리고 더 밝은 2023년을 기약했다. 김하성이 뛰는 샌디에이고는 24일(한국시간) NLCS 5차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3-4로 패해 시리즈 전적 1승 4패로 '가을 야구'를 마감했다. 이날 세 타석에서 삼진 2개 등 무안타로 침묵한 김하성은 9회초 1사 1루에서 볼넷을 골라 역전 주자로 베이스를 밟았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홈에 들어오지 못한 채 생애 첫 바킹포 시즌을 마쳤다. 와일드카드 시리즈, 디비전시리즈, NLCS 12경기에서 타율은 0.186(43타수 8안타)으로 저조했으나 이 이상으로 김하성은 찬란하게 빛났다. 타점 3개를 수확했고, 8득점을 올려 샌디에이고의 전설 토니 쿠니가 1984년 남긴 샌디에이고 타자 포스트시즌 최다 득점(7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의 홈 팬들에게 이번 가을, 짜릿한 승리의 추억을 안기게 데 앞장섰다. 김하성은 16일 다저스와 치른 디비전시리즈 4차전에서 0-3으로 끌려가던 7회 무사 1, 2루에서

3루수 옆을 뚫고 좌익선상으로 굴러가는 적시타를 터뜨려 대량 득점의 물꼬를 텄다. 샌디에이고는 이 기회에서 넥 짐을 더 보태 5-3으로 대역전승을 거두고 NLCS에 진출했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다저스에 무려 22경기나 뒤져 지구 2위에 머문 '언더독' 샌디에이고가 가을 야구에서 극적인 '업셋'(뒤집기)을 이룬 순간이었다. 김하성은 NLCS 2차전에서도 2-4로 끌려가던 5회말 선두 타자로 나와 깨끗한 좌전 안타로 출루한 뒤 1사 후 오스틴 놀라의 우중간 안타 때 1루에서 홈까지 전력 질주 후 그야말로 날아서 슬라이딩으로 홈을 짙어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부상에 금지 약물 복용 등으로 한 시즌을 통째로 비운 간판타자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대신해 김하성은 올 시즌 샌디에이고의 불박이 유격수로 입지를 넓혔다. 김하성은 올해 정규리그에 타율 0.251에 홈런 11개, 타점 59개, 도루 12개를 남겼다. /연합뉴스

매길로이, 더 CJ컵 2년 연속 우승

PGA 23승·세계 랭킹 1위 복귀
이경훈 3위·김주형 11위

로리 매길로이(33·북아일랜드)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총상금 1050만 달러) 2연패를 달성했다. 매길로이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질랜드의 풍가리 골프클럽(파71·765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3개로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한 매길로이는 커트 기타야마(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매길로이는 6월 캐나다오픈, 8월 투어 챔피언십에 이어 올해 세 번째 PGA 투어 우승을 달성했다. 매길로이는 더 CJ컵 2연패를 달성하며 PGA 투어 통산 23승을 기록했다. 또 매길로이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했다. 매길로이는 2012년 3월에 처음 세계 1위가 됐



로리 매길로이

고, 최근에는 2020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1위 자리를 되찾았다. 매길로이가 세계 1위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통산 9번째다. 이경훈(31)이 15언더파 269타로 단독 3위에 올라 이 대회 한국 선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김주형(20)이 10언더파 274타로 공동 11위, 임성재(24)는 4언더파 280타로 공동 34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광주, 전국장애인체전 종합 6위 '역대 최고 성적'

전남은 한 계단 상승 9위

광주 선수단이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순위 6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 종합순위 7위에 올랐던 광주 선수단은 24일 울산에서 폐막한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51개, 은메달 69개, 동메달 80개 등 200개(지난 대회 170개) 메달을 수확, 역대 최고 종합득점(11만 3647점), 종합순위(6위)를 달성했다. 개인종목 위주로 구성된 광주 선수단이 종합득점 11만점 이상을 획득한 것은 성과로 풀이된다. 출전 점수와 배점이 높은 실업팀들을 대거 출전시킨 타 시도와 경쟁했기 때문이다. 육상(2만383점), 탁구(1만8534점), 양궁(4009점) 등이 광주의 약진에 기여했다. 역도 박종선·정지승, 육상 방미주·김지혜·김현정이 한국신기록을 세로 썼고 수영 김지향·전정일, 육상 김지혜·김하은 등 3관왕 4명을 배출했다. 지적장애 축구단 FC광주엔젤은 이날 울산과 결승에서 4-3으로 승리, 정상을 탈환했다.

전남은 금메달 36개, 은메달 33개, 동메달 67개 등 모두 136개 메달을 획득, 종합득점 9만983점으로 지난 대회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순위 9위에 올랐다. 육상에서 하성환이 3관왕에 올랐고, 불링 김수영·신백호, 육상 이미옥·강수빈, 당구 정선정, 댄스스포츠 송시연·문지용이 2관왕에 올랐다. 전남 선수들은 한국신기록 6개를 새로 썼다. 최길라가 수영 여자 자유형 200m S12(선수부)와 여자 자유형 100m S12(선수부)에서 2개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했고, 육상에서 하성환·박영순·조경화가, 사격에서 이윤리가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단체종목도 선전했다. 여자 배구 전남장애인체육팀은 결승에서 경남을 3-0으로 꺾고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고, 남자팀은 4위에 올랐다. 여자부 1위, 남자부 4위를 차지한 전남 배구는 충남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